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북미 냉장·냉동 창고 거래액 연평균 6.2% 증가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DP World, 트레이드렌즈와 초기단계 협업 완료
2. 머스크, 지속가능한 연료 생산을 위한 국제 연합체 구성
3.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국제 화물도난 사건 속출
4. 이스라엘 짐라인, 미-중 항로 서비스 개시

명사 스피치

“7월부터 발표되는 KDCI(Kobe Dry Composite Index)가 공신력을 갖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KDCI를 활용해 실제 해운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두 해양진흥공사 부장
(2020. 6. 2 /한국해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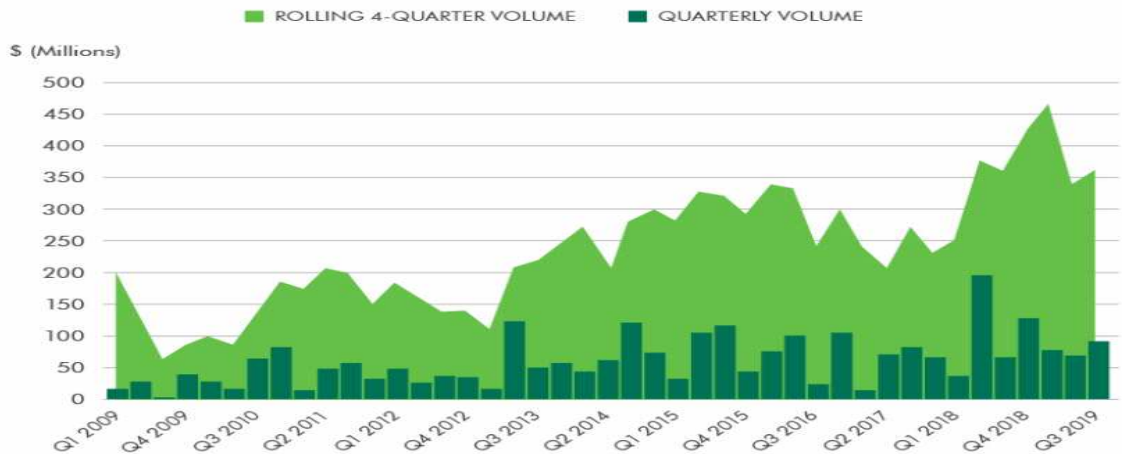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북미 냉장·냉동 창고 거래액 연평균 6.2% 증가

북미 냉장·냉동 창고 거래 규모의 변화 (2009~2019년)



자료 : CBRE US Report (2019.12.11.)

- 통계 전문사이트 Statista에 따르면, 2019년 북미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74.2억 달러를 기록함
 - 2019년 북미 콜드체인 시장규모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2018년의 경우 시장 규모는 64.02억 달러였음
 - 북미 콜드체인 시장은 향후 CAGR(연평균 성장률) 9.7%를 기록하고, 2023년도까지는 142.6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상업 및 물류 부동산 투자 전문기업인 CBRE는 북미 냉장·냉동 창고 거래 규모를 발표하며 콜드체인 인프라 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지난 5년간 16억 달러 상당의 냉장·냉동 창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대형 포트폴리오 및 M&A 제외) 이와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물류 시설 거래액 대비 0.4%에 그침
 - 거래액은 2014년 이후로 매년 6.2%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8년에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호놀룰루에서 대규모 냉장·냉동 창고 인수로 인해 2017년 대비 82.6% 증가한 4억2300만 달러를 기록함
 - 최근 대부분의 대규모 냉장·냉동 창고 투자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마이애미에 집중되어 있음
 - 하지만, 세인트루이스, 밀워키, 템파, 클리블랜드, 사바나, 볼티모어에도 냉장·냉동 창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함
 - CBRE 리포트는 2009년부터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사용 가능 냉장·냉동 창고의 부족은 계속될 것이며, 향후로도 몇 년 동안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검색일: 20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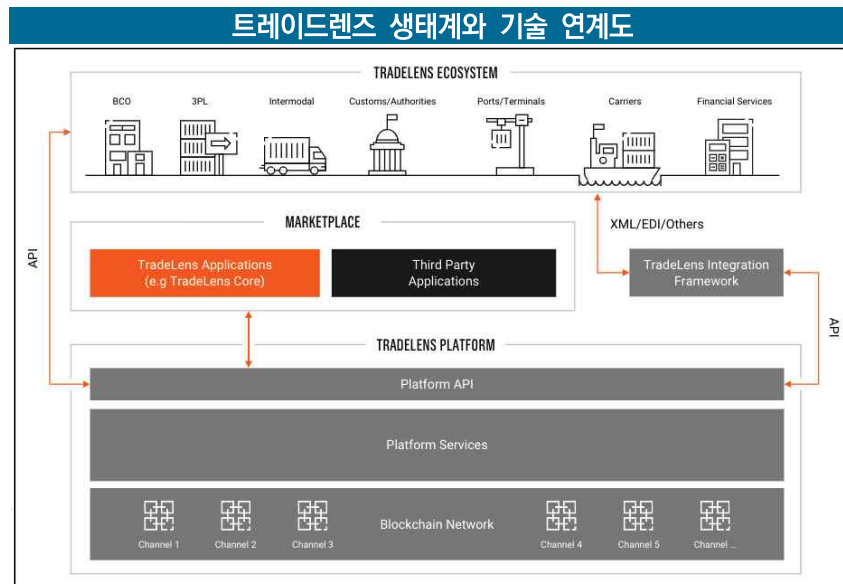
정문석 연구원

051-797-4794, moonlightj90@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DP World, 트레이드렌즈와 초기단계 협업 완료

- 지난 5월 28일 DP World는 트레이드렌즈(TradeLens)와의 성공적인 초기단계 협업 완료를 발표함
 - DP World는 2019년 기준 7만 대의 선박을 대상으로 약 7,120만 TEU를 처리한 세계적 터미널 운영사업
 - 트레이드렌즈는 머스크(Maersk)와 IBM이 합작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컨테이너 물류 플랫폼으로, 국제 공급 사슬 생태계 정보를 디지털화 수집·공유하고 컨테이너 흐름의 가시성을 확보해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현재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하파그로이드(HPL: Hapag-Lloyd)를 비롯한 대형 선사, 터미널 운영사, 포워더 등이 트레이드렌즈에 참여해 정보 공유의 이점을 누리고 있음
 - 지난 5월 28일 DP World는 트레이드렌즈 플랫폼을 활용해 인도 코친항(Cochin Port)과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발표하고, 종이문서 대체, 가시성 확보 등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향후 82개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피더선사 등을 트레이드렌즈에 연계한다는 비전을 제시함



자료: https://docs.tradelens.com/learn/solution_architecture/ (검색일: 2020. 6. 1)

- 우리나라 터미널 운영사를 포함한 물류 기업도 블록체인 플랫폼 확장 추세에 다각도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물류 가시성 확보·공유를 통한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한 트레이드렌즈로의 참여 가능성이나, 정부 또는 민간 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한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www.maersk.com (검색일: 2020. 6. 1)

서정용 전문연구원

051-797-4676, jseo@kmi.re.kr

머스크, 지속가능한 연료 생산을 위한 국제 연합체 구성

-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의 발표에 따르면, 머스크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획기적인 수소 및 전기 연료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할 계획임
 - 동 연합체에는 DSV 판알피나, DFDS, SAS, 외르스테드 등의 기업들이 수소 연료를 공급망 전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함
- 2023년 생산을 시작해 2030년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박화물차량 항공기용 지속가능한 연료를 연간 25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시설은 대코펜하겐 지역에 위치하며, 잠재적으로 연간 총 1.3 기가와트 규모의 연료를 생산하여 연간 탄소배출량을 85만 톤까지 줄일 수 있음
 - 동 시설에서는 모비아가 입찰한 무배출 버스, DSV 판알피나가 운영하는 중형트럭을 위한 신재생 수소 에너지, 머스크 선박용 신재생 메탄올, 그리고 SAS 항공기 및 코펜하겐 공항 등 항공 운송용 신재생 항공연료(e-kerosene)를 공급할 예정임
 - 한편 동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의 전기 공급은 본홀름섬에 있는 뢰른 뱅케의 해상 풍력 발전시설을 통해 해결할 계획임
- 머스크의 최고경영자인 쇠렌 스키투는 운송 분야의 탈탄소화는 모든 기업, 조직, 국가의 협력적인 기여가 필요한 중요하고 복잡한 과제라고 강조함
 - 동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커다란 변화의 첫걸음으로, 덴마크가 이러한 녹색변혁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 에너지로 미래를 선도할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특별히 만족감을 표시함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검색일: 2020.6.1)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국제 화물도난 사건 속출

- 운송자산보호협회(Transported Asset Protection Association)는 향후 국제 화물도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운송자산보호협회는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물류 관련 보안관리 협회로 운송보안인증 표준을 관리하며, 화물도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협회에 따르면, 2020년 3월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37개 국에서 400 건 이상의 화물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1,640만 유로(약 224억)로 추정됨
 - 4월에도 스페인에서 200만 장의 마스크를 도난당했고 영국에서 스포츠 장비를 도난당하는 등 화물도난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봉쇄 조치로 형사 범죄 건수 자체는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지만 향후 봉쇄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화물도난 범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로 인해 화물도난 위험성이 더욱 높아짐
 - 선박의 임시결항(blank sailing)과 장기 정박이 늘어나고 있으며, 항공·해상 운송 능력 저하와 운임료 상승 등은 공급망 붕괴를 초래하고 있음
 - 화물이 기존의 익숙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위협 요소를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경로로 움직이게 됨에 따라 도난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급망 가시성이 저하되고 화물 추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재택근무로 인한 시스템의 외부 노출 또한 공급망의 위협 요소로 작용함
- 향후 공급망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리질리언스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됨
 - 화물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공급망의 붕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공급망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
 - 또한, 항공·해상·도로·철도 등 다양한 운송 수단별 사건 사례를 기록하고 사례에서 해결책을 찾아 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www.theloadstar.com(검색일: 2019.6.2.), www.postandparcel.info (검색일: 2019.6.2)

김성기 전문연구원

051-797-4688, skkim@kmi.re.kr



이스라엘 짐라인, 미-중 항로 서비스 개시

- 이스라엘의 최대 컨테이너 정기선사인 짐(Zim)라인은 전자상거래 이용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중국에서 미국 서안 LA항까지 전용 서비스를 시작함
 -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전세계 무역 및 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전자상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짐라인 관계자에 따르면 미-중 서비스(ZEX: ZIM eCommerce Xpress)는 중국과 LA항간 가장 빠른 운송 서비스가 될 것이며, 총 운송시간은 12일에 불과하다고 밝힘
 - 이 서비스에는 신속한 화물 운송을 원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 및 이용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2,8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배치할 예정이며, 시카고, 멤피스, 댈러스, 캔자스 시티, 뉴욕 등지로 철도 복합운송도 가능함
- 짐라인은 지난해부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해왔음
 - 2019년 짐라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Ladingo의 개발을 완료함
 - Ladingo 개발을 위해 1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바 있으며, 미국 내에서 시범 운영을 완료함
 - 또한 전자상거래 청구서를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으로 디지털화하여 모든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등 종이 기반의 기존 물류 서비스 프로세스를 대체함
- 짐라인의 사장 겸 CEO인 엘리 글릭만은 “급성장하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운송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로서 더 저렴한 가격과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검색일: 2020.6.2.)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